

## ‘일대사 해결’ 2200여명 하안거 해제

103개 선원 법회

조계종 전국 선원들이 지난 10일 3개월간의 하안거를 마치고 일제히 해제법회를 봉행했다.

전국선원수좌회에서 발간한 <선사방합록>에 따르면 불기 2558년 갑오년 하안거에는 8대 총림을 비롯해 61개 비구 선원과 34개 비구니 선원 등 전국 103개 선원에서 비구 1194명, 비구니 723명, 총림 305명 등 총 2222명의 수좌들이 일대사 해결을 위해 정진했다. 해제를 맞아 진제 종정예하를 비롯해 각 종립 방장 스님들은 법어를 통해 남자들을 독려했다.

안거는 일정기간 외출을 삼가고 한 장소에서 머무르며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온 불교의 전통으로, 스님들은 우기인 4월15일부터 3개월 간 동굴이나 사원에서 머물며 수행했다. 우기 때 외출하다 풀이나 나무, 작은 곤충을 모르고 밟아 죽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오늘날 한국불교에서는 음력 4월15일부터 7월15일까지 하안거 결제를, 음력 10월15일부터 다음해 1월15일까지 동안거 결제를 한다. ▶관련기사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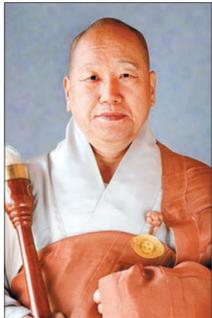
허정철 기자 hje@bulgyo.com

## “결제 해제 떠나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하안거 해제법어

鐵牛耕破洞中天  
桃花片片出深源  
秦人一去無消息  
千古峰巒色轉新  
철로 만든 소가 동중전을 갈아 없애니 복숭아 꽃잎들이 깊은 근원에서 나오리라. 진나라 사람은 한 번 감에 소식이 없었으나 천년 봉우리들은 빛깔이 전전히 새로움이로다.

옛날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석두(石頭)·마조(馬祖) 두 선지식이 쌍벽을 이루어 부처님 심인법



진제 종정예하

(心印法)을 선양하며 전하를 행하였는데, 그 아래 무수의 도인(道人)이 쏟아져 나와 중국 전하를 덮은 때가 있었다. 당시에 방거사(龐居士)라는 철저히 신심 있는 단월가(檀越家)가 있어 ‘나도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 도인이 되어야겠다’ 작심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수 백리를 걸어서 석두 선사를 찾아가다.

찾아가 석두 선사께 예 삼배를 올리고 여쭙기를, “만 가지 진리의 법과 더불어 벗을 삼지 아니한 자 누구입니까?” 하니, 석두 선사께서 물음을 채 끝까지도 전에 손으로 방거사의 묻는 입을 틀어막으

셨다. 얼마나 고준한 진리의 안목을 갖추었기에 만 가지 진리의 법과 벗을 삼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가. 바로 이 말 끝에 방거사는 진리의 눈이 팔부(八部)가 열리었다. 그래서 “선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하고 인사를 올리고는 또다시 수 백리를 걸어 마조 선사를 친견하려 갔다. 도착하여 마조 선사께 예 삼배를 올리고는 석두 선사께 물었던 것과 같이, “만 가지 진리의 법과 더불어 벗을 삼지 아니한 자 누구입니까?”하고 여쭙니, 마조 선사께서는 입을 틀어막지 아니하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서강수(西江水)의 물을 한

## 열심히 하고 화합하니 소임 다시 맡겨

고운사 주지 호성스님 3선

경북 북부를 관장하는 제16교구 고운사 주지 호성스님(사진)이 세 번째 주지를 맡게 됐다. 고운사는 지난 4월 스님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현 주지 호성스님을 차기 주지후보로 선출했다. 후보로 선출된 주지는 총무원장 스님의 임명을 받으면 정식 취임한다.



교구본사 주지가 세 번째, 그것도 만장일치 추대로 연임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1960~80년대는 사찰 정화를 주도하는 등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스님이 오랫동안 주지를 맡기는 했지만 1994년 본사 주지가 교구 재직승의 직접 선출로 바뀐 뒤에는 지난 2012년 월정사 주지 정년 스님이 3선에 추대된 뒤 두 번째다.

호성스님이 경선 없이 만장일치 추대로 3선에 연임하게 된 이유로 스고운사의 근본적 변화를 불러온 활발한 불사와 지역 발전 공헌 스대중공의와 화합의 교구 운영 능력 있는 주지를 장기간 연임시키고 지원하는 고운사 교구 문화 등을 들고 있다. 호성스님은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는 수행공동체, 사회와 이웃을 향한 나눔과 봉사의 불교,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화엄사상 선양, 고운사와 교구의 전법도량 기반 구축을 기조로 고운사 일대에 다양한 수행 포교 시설을 갖추고 의성 안동 등 인근 지역에 청소년문화센터, 사찰음식체험관 등을 건립하는 등 역대 가장 활발한 포교와 불사를 시행해 스님과 신도는 물론 지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산중총회에서 호성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우리에게서 모두에게로 향하는 화엄의 본체를 바로알고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고운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약하고 취약한 부분이 있으나 힘을 모아주시면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운사=박부영 기자  
박광호 대구·경북지사장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발족식  
일시 | 2014년 8월 6일(수) 오후 2시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한국의 전통사찰 7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가 꾸러졌다. 사진은 협약서 서명 이후 진행된 기념촬영.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 출범

통도사 등 7개 대상사찰  
지원업무 협력서도 체결

전국의 전통사찰 7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공식 기구인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조계종은 지난 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를 발족하고 2018년 등재를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추진위가 등재를 추진하는 사찰은 안동 불정사, 영주 부석사, 양산 통도사,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선암사, 해남 대흥사 등 총 7 곳이다. 추진위는 위원장인 총무원

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나선화 문화재청장, 등재 대상 사찰들이 있는 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의 5개 광역단체장과 안동, 영주, 공주, 순천, 해남, 양산, 보은 등 7개 자치단체장, 7개 산사 주지 스님 등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업무를 전담할 추진위 사무국을 중심으로 연구와 조사, 학술회의, 세계유산유산 비교 연구 등을 통해 한국의 전통산사가 지닌 세계 유산적 가치를 정립해 나간다. 등재신청서 작성은 2016년 말까지 완료한 뒤 2017년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같은 해 유네스코로부터 위임받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전문가 실사를 거쳐 2018년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

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날 조계종과 문화재청, 광역단체장과 자치단체장, 전통산사 주지 스님 등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노력을 다하고, 제반사항에 협력할 것을 다짐하며 협약서에 서명했다.

위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에서 “국민들의 자부심을 하나로 결집해 한국의 전통산사가 2018년 세계문화유산에 당당히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축사에서 “세계인들이 우리 정신문화를 본받기 위해 찾아오는 도량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불교신문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유능한 인재를 찾습니다. 한국불교 최고의 역사, 열독률을 자랑하는 불교신문은 문서를 통한 불법홍포를 목적으로 우리 사회에 행복과 깨달음을 전합니다. 한 장의 불교신문 한 사람의 포교사라는 가치에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불교신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1. 모집 부문 및 응시자격

채용 분야	인원	응시 자격
취재기자(수습)	0명	조계종 신도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 조계종법상 결격사유가 없는자 ※ 취재기자의 경우 외국어(영어) 자격 별도
독자관리 및 영업	0명	

#### 2. 전형 방법

채용 분야	전형절차		
	1차	2차(필기)	3차
취재기자(수습)	서류전형	불교상식·논술	면접
독자관리 및 영업	서류전형	불교상식	면접

※ 모든 전형은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필기시험 : 2014년 8월 20일(수) 예정

#### 3. 지원 방법

본사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4. 접수기간 : 2014년 8월 4일(월) ~ 8월 13일(수) 17시까지

5. 문 의 처 : 불교신문사 임무국 관리부 ☎ 02-730-448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불교신문 홈페이지 참조

### 지면안내

의정부 회룡사 해제 현장 3면

설악산 신홍사, 고성 건봉사서  
'22사단 회생 장병' 49세 거행

지구총공생회·전주 정혜사  
미안마 정혜초등학교 기공 6면



스리랑카 진신사리  
석왕사로 이운 봉안 현장 7면

'예세이 구산선문'  
동리산문 태안사와 해철굴사 8면

## 설정 큰스님과 함께하는 실크로드 불교유적순례




《돈황 막고굴》

'2014년 승려연수교육'으로 설정 큰스님과 함께하는 실크로드 불교유적순례를 8월 27일(수)부터 9월 3일(수)까지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장안인 시안에서 시작해 맥적산 석굴과 병령사 석굴을 지나 하서회랑을 거쳐 만리장성의 끝인 가옥관과 둔황의 막고굴까지, 그리고 투루판의 고성, 서유기의 무대 화염산과 천불동 석굴, 우루무치의 천산 천지까지의 실크로드 순례길을 순례합니다.



오늘 걸어가 나의 발자국, 훗날 뒤에 오는 이의 이정표가 되리니!

■ 일 정 : 불기2558년 8월 27일(수) ~ 9월 3일(수)  
(음 8월 3일 ~ 10일, 8일간)

■ 동 참 금 : 199만원

■ 입금계좌 : 기업은행 070-7124-2125(예금주 : (주)비단투어)

■ 장 소 : 서안→천수→난주→가옥관→둔황→유원→투루판→우루무치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주관여행사 : 비단길여행 접수 및 문의 : Tel 070-7124-2125